

광주·전남 고용시장 살아난다

3월 취업자 광주 2000명·전남 2만5000명 늘어 실업률 광주 0.9%p ↓ 4.1%...전남 1.5%p 하락 3.0%

지난달 광주·전남 고용시장은 고용은 늘고 실업은 줄어 들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종 등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률이 소폭 높아졌다. 지난 2월 5%대까지 치솟았던 광주지역 실업률은 4%대로 내려앉았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0일 내놓은 '2019년 3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고용률은 59.2%로 전년동월과 같았다. 취업자는 74만8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2000명(0.3%) 늘었다.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만7000명(8.8%), 제조업 2000명(2.1%)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업 1만5000명(-9.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6000명(-7.5%), 건설업 5000명(-6.8%) 등은 감소했다. 실업자는 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명(-19.3%) 감소했고,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0.9%p 떨어졌다. 지난 2월 광주 실업률은 5.3%로 2005년

3월 5.5%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고용환경이 개선되면서 4%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전남지역 고용률은 지난달 62.9%로 전년동월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96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5000명(2.7%) 증가했다. 산업별로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만8000명(9.0%), 건설업 1만1000명(16.0%) 등에서 늘었다.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업 2만명(-10.2%),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000명(-4.4%) 등은 감소했다. 실업자는 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4000명(-32.5%) 줄었다.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취업자는 268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명 증가했다. 전월 26만3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취업자 증가 폭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실업자는 11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명(-4.8%) 감소했다. 작년 6월(-2만6000명) 이후 전년 동월 대비로 계속 증가하던 실업자는 9개월 만에 줄었다.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월 은행 연체율 소폭 ↑ 0.07%p 올라 0.52%

2월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소폭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연체가 늘면서 연체율이 높아졌으나 절대적인 수준으로 높지는 않다는 것이 당국의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2월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0.52%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월대비 0.07%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2월 기준으로 전월대비 연체율 상승 폭을 보면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다. 은행들이 통상 연말에 연체채권을 대규모로 상각하므로 1~2월에는 대개 연체율이 오른다. 이런 경향을 감안했을 때 연체율 상승 폭이 평년보다는 다소 컸던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66%로 전월말보다 0.10%포인트 올라 전반적인 연체율 상승에 기여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은행들이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금융의 비중을 늘리면서 중소기업 연체율이 다소 오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김정수 작품 '진달래-축복' TV에 담다. 삼성전자는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선풍관에서 개최되는 김정수 작가의 개인전 '진달래-축복'에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QLED' 디스플레이의 우수성과 새로운 활용 가치를 알린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 '더 프레임'에 전시된 '진달래-축복' 미디어아트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효성중공업, 미국 에너지저장시스템 시장 진출

어바인시에 첫 현지 사업소 열어 국내 ESS사업 점유율 30% 차지. 효성중공업이 미국에 첫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사업소를 열고 북미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10일 효성에 따르면 미국 법인 HYOSUNG USA는 최근 효성중공업이 ESS가 미국 어바인시에 첫 현지 사업소를 열었다.

효성이 미국 현지에서 ESS 사업 진출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이 분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시장은 세계 ESS 시장을 선도하며 한국이 세계 최대 ESS 시장이었지만 올해 또는 내년 중에 미국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효성중공업은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

는 공고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효성중공업의 ESS 사업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했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발표한 국가들의 시장을 노리고 있다. 5년 내 이 분야 글로벌 '톱3'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에너지 컨설팅 전문기업 우드매켄지 보

고서에 따르면 미국 ESS 설치 규모는 2018년 774MWh 수준에서 2023년 1만 1744MWh로 연평균 72%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인한 ESS 설치단가 인하,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ESS 사업화 허가 및 주정부들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효성 관계자는 "기준에 미국 시장에서 영업을 펼쳐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소를 마련하고 ESS 중심의 본격적인 시장 대응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ESS 시장 중 미국 성장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24.39 (+10.83)	↑ 금리(국고채 3년) 1.73 (+0.01)
↑ 코스닥 760.15 (+3.34)	↓ 환율(USD) 1138.60 (-3.50)



광주은행, 하루만 맡겨도 우대금리 '머니파킹통장'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하루만 맡겨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머니파킹통장'을 오는 1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머니파킹통장'은 잠시 주차를 하듯이 일정금액을 하루만 맡겨도 약정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수시 입출금식 통장이다. 만 17세 이상부터 만 30세 이하까지 광주은행 모바일앱에서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일반저축예금 금리는 0.1%-0.2%인 반면, '머니파킹통장'은 이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머니파킹통장' 가입 시 예금잔액 범위에 따른 4가지 구간 중 가입자가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을 선택하면 매일 최종잔액 기준으로 ▲파킹구역A 최저 10만원 이상-최고 30만원 이하 1.3%p ▲파킹구역B 최저 30만원 이상-최고 50만원 이하 1.4%p ▲파킹구역C 최저 50만원 이상-최고 70만원 이하 1.5%p ▲파킹구역D 최저 70만원 이상-최고 100만원 이하 1.6%p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매일 내 번째 일요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머니파킹통장' 가입자는 조건 없이 전자기금 타행이체수수료와 당행 및 GS 25편의점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혜택을 월 3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인이나 친구에게 '머니파킹통장' 추천을 통해 최대 월 10회까지 수수료 면제혜택을 늘릴 수 있다. 광주은행 백의성 디지털전략부장은 "머니파킹통장은 금액구간별로 정기성 예금에 준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도 입출금이 자유로워 고객님께 만족스러운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 쉽고 재미있는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주)지구, 미세먼지 제거 가습 겸용 공기순환기 개발

광주의 한 중소기업이 미세먼지 제거 및 가습 기능을 동시에 가진 공기순환기를 개발, 출시했다. 공조냉동설비를 전문 제조하는 (주)지구(대표 류명열)는 기화식 세라믹 성분의 가습여재를 이용해 필터 없이도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항균 기화식 가습기'를 내놨다. 이 제품은 깨끗한 물로 공기를 세척 후 가습하는 시스템으로 먼지, 세균 냄새 제거 효과와 박테리아 전이 없는 항균 패드를 사용하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설치를 위한 별도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설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천장매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존 증기 분사식 가습기는 증기 발생을 위한 고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부식 등 오염이 심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가정용 초음파식 가습기는 가습용 물의 정제로 세척의 번거로움과 오염된 습기 공기가 우려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지난 2010년 (주)지구에서 특허 등록된 기화식 가습 방식은 습윤된 가습 여재에 공기를 통과시켜 통과 공기의 열에 의해 물을 기화시키는 원리로 먼지제거와 탈취 효과가 있다. 또 내구성 좋고 보수가 쉬우며 에너지 소비가 매우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가습 총속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